



이 학 영 | 한국생태환경연구원 원장
우리협회 건설분과부위원장
(koreafish@hotmail.com)

우리 하천 우리 물고기

참종개: 참 좋은 물에 사는 참 정겨운 물고기

학 명 : *Issookimia koreensis*

지역 방 언 : 기름챙이, 특침이, 싸리미꾸리, 기름쟁이, 수수챙이 등
분 류 : 잉어목 미꾸리과

자생 수역 : 한강 등 한국의 중부 수계 하천

주 서식장소 : 여울부, 잔자갈이 깔리고 물이 맑은 곳

번 식 기 : 6~7월

크 기 : 12센티 내외

참종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특산어종이지만 국내 전역에 두루두루 다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상도나 전라남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하천을 아무리 뒤져도 그 모습을 볼 수 없다. 임진강과 한강 수계, 금강과 만경강 수계, 정읍을 끼고 서해 바다를 향해 흐르는 동진강, 그리고 특이하게도 서해로 흐르는 하천이 아닌 삼척의 오십천 수계 등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오십천에 사는 참종개는 아주 오래 전에 태백산 줄기에서 한강 수계로 흐르는 하천의 일부가 침식과 지각 변동으로 동해 쪽으로 함몰되어 이곳에 살던 것들이 옮겨지게 되었다는 학설이 있다.

참종개는 미꾸라지와 아주 비슷한 몸 모습을 하고 있으며 뒤로 길쭉한 몸매에 옆으로는 통통하면서도 약간 납작하게

생겼다. 주둥이에는 3쌍의 수염이 길게 달려 있어 이것을 이용하여 먹이활동과 장애물을 감지하고 모래에 묻힐 때는 작은 쟁기 역할을 하여 신속하게 천적으로부터 몸을 숨길 수가 있다. 이 수염의 역할은 물바닥을 기고 사는 물고기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써 이것이 손상되면 먹어도 잘못 먹고 피신하는 데도 지장을 받아 생존경쟁에서 뒤지게 된다.

참종개를 맨손으로 잡으면 따끔함을 느끼는 때가 있다. 이는 이 물고기의 눈 밑에 짧은 가시가 나 있기 때문이다. ‘안하국’으로 칭하는 이 신체부위도 참종개가 모래 속을 전광석화와 같이 파고들어갈 때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에는 4개 정도의 흑색 가로무늬가 줄지어 있어서 이를 펼친 모습이 아름답다. 입 주둥이 끝에서 눈동자까지에도 검은 실선이 드리워져 있으며 뺨에는 작은 좁쌀 무늬의 반점들이 밤하늘 작은 별처럼 박혀 있다.

몸통을 옆에서 보면 10~15개 정도의 검정 자루 무늬가 달려 있는데 마치 일기예보의 온난전선 표시와도 유사하게 보인다. 비 오는 날 물 속에서 참종개가 춤을 추며 수면을 차고 오르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하니 어찌면 더 자세하게 이 물고기를 연구하다 보면 일기를 감지하는 능력을 가진 것인지도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암·수의 구분은 가슴지느러미의 모양으로 할 수가 있는데 수컷 참종개는 암컷에 비해 끝이 뾰족하고 길쭉하게 생긴 가슴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

참종개는 물이 맑고 잔모래와 자갈이 깔린 여울에서 때

를 지어 살면서 하천 바닥에 사는 수서곤충, 돌에 붙은 이끼류 등을 먹으므로 하천 복원시에는 이러한 특성을 잘 고려해야 한다. 😊



〈그림 1〉참종개
한국특산종으로 2급수 이상 맑은 하천에 산다.



〈그림 2〉서식처
참종개의 서식처인 공룡천 상류에서 아이들과 채집중인 할아버지.

필자 이학영 박사가 2011년 2학기부터 고려대에서 다음 강의를 맡는바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자원관련 종사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강생 모집 안내

- 과 정 명 : 고려대학교 수생태해설사 과정 제1기 (평생교육원)
- 지도 교수 : 이학박사 이학영
- 강의 일시 : 2011년 9월 첫주 ~ 12월 초 / 1학기 15강
실내강의 :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 25분
현장 실습 : 토, 일, 공휴일 일정 조정
- 장 소 :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라이시움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바로 옆)
- 내 용 : 물과 관련된 수생태 및 환경 전반
- 대 상 : 물과 생태 환경에 관심 있는 일반인
- 수 강 비 : 45만원 (초기 특별 수강비, 타 해설가 150여만원 수준)
- 사전 수강생 예약 : 지도교수 이학박사 이학영 rhys@hanmail.net 010-3274-7282